

회장단 동정

윤종용 회장 아테네올림픽 성화봉송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이 8월 12일 오후 1시(현지시각) 그리스 아테네시 남쪽 블리그아메니에서 성화를 받아 들고 400미터를 달려 성화봉송을 했다. 윤 부회장은 지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 이번 아테네 올림픽까지 올림픽만 4차례, 아시안게임을 포함해 모두 6차례나 성화봉송에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올림픽의 감동을 삼성과 함께(share the olympic experience with samsung)' 라는 슬로건 아래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으며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선발된 일반 소비자, 거래선, 연예인 등 1,900여명의 성화 주자를 선발해 성화봉송의 기회를 제공했다.

자칭린 중 정협주석, 윤종용 회장 환담



자칭린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방한, 지난 8월 28일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자칭린 정협주석(왼쪽)이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를 방문해 윤종용 부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쌍수 부회장, "소프트웨어(S/W) 역량이 기업미래 좌우"

LG전자가 글로벌 Top3 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나섰다.

LG전자 김쌍수(金雙秀) 부회장은 8월 19일 경기도 평택 소재 LG전자 러닝센터에서 열린 「LG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수료식에서 "소프트웨어 역량과 기업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쌍수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주요 원천"이라며 "혁신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디지털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제품 개발의 핵심 기술요소인 소프트웨어 역량이 중요하다"며 "강한 열정을 갖고 도전적인 목표(Stretch Goal)를 설정,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적체적소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로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강한 회사(Great Company)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LG전자의 디지털TV 분야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미 전체 기술의 50%가 넘어섰으며 인터넷 냉장고, 인터넷 세탁기 등의 디지털화로 홈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는 전체 연구인력의 70% 이상이 소프트웨어 인력이다.

LG전자는 소프트웨어 우수인력 유치 및 양성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LG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고 100명의 대상자를 선발, 전문가 과정을 진행했으며, 하반기 추가로 100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채용,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현업에 배치할 예정이다.

LG전자는 향후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을 더욱 활성화하고 매년 200명 이상의 능력있는 소프트웨어 핵심인

재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각 사업분야의 소프트웨어 비중을 80% 까지 끌어올려 소프트웨어 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필립스전자 신박제 회장/기업의 성장은 '기업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립스는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겪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사회적 평등의 실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신박제 필립스전자 사장은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필립스의 '지속가능한 성장' 철학은 창립 초기로 거슬러 올라 간다고 설명한다.

안톤, 제라르드 필립스 등 2명의 창립자가 기술개발에 앞서 기업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철학이 필립스라는 기업의 유전자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립스는 창립 당시 연금, 진료비, 주택비 제공과 아인트호벤 시내 무료 진료소 및 스포츠센터 건립지원, 직원 자녀들의 대학 진학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지원책을 실천에 옮겼다고 신 사장은 전한다.

“114년이라는 필립스의 역사를 일관되게 이어온 유산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서 “필립스의 제품 개발 철학은 기술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첨단 기술이 구현하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조명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업화에 성공해 많은 인류에게 빛을 선사했으며,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다수 제품들도 인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트랜지스터 라디오, 아날로그 카세트 녹음기, CD 플레이어, HD TV, DVD리코더, 입는 가전, 심장박동소생 등 생활 속에 산소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다”며 “종업원에게 군림하려 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개개인의 능력을 더해 시너지를 극대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신 사장은 한 달에 한 번은 일반 직원들과 자유모임을 갖고 있다. 차 한 잔 마시며 인생의 선배로서, 혹은 동료로서,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하여 직장을 일터이자 놀이터와 같은 신명나는 분위기를 가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사장 취임 초기부터 직원들의 스스럼없는 의견을 위해 '신문고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전직원과의 월례회의를 개최해 경영실적 보고 및 애로사항 수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 사장은 “누구나 즐겁게 일하는 놀이터와 같은 직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낀다면 경영도 자연스레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 이감열 부회장, 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정 CEO 초청간담회 주제



본회(회장 윤종용)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공과대학 기술정책대학원과정으로 이번 학기에 국내 전자산업계 리더들의 강의로 구성된 교과목을 개설, 운영한다. 7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혁신주도형 산업발전 전략과 디지털 전자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삼성SDI 등 대기업 임원과, 이레전자 등 중소기업 CEO의 강의를 매주 이어진다.

본회와 서울대가 산학협동으로 추진하며, 내용은 디스플레이, 가전, 부품, 휴대폰 등 전자산업 기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통상마찰, 환경규제 등 산업 환경과 관련한 주제도 다루어진다.

이번 과목 개설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해 온 산업계와,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에 대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대학 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준비 과정에서 서울대 교수진과 산업자원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그리고 직접 강의에 나설 전자산업계가 수차례 모여 산업과 교육의 만남에 대해 장시간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기술정책대학원과정은 경제학-행정학-공학을 아우르는 학제간 협동과정으로서 1996년에 설치되었다.

본회 최영훈 본부장은, “이번 강좌는 향후 산업계와 학계가 협동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매우 시기적절하다.” 며, “학생들은 현장 강의를 선호한다. 기업은 원하는 인재상을 전달하고 산업현장과 학교의 간극을 메움으로써 큰 성과를 거둘 것.” 이라고 밝혔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서울대학교 신공학관에서 열리며, 정식 교과목으로 수강하는 학부·대학원생은 물론 모든 재학생과 일반인도 참석 가능하다.

(문의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산업연구소 02-565-5803
서울대 공과대학 기술정책대학원과정 02-880-8386)

교과목명 : 전기전자산업정책론
강의시간 : 화요일 17:30~
강 의 실 : 서울대학교 신공학관 302동 105호

강의 일정표

주차	강사	강의 주제
1주(9/7)	이희범 장관(산업자원부)	혁신주도형 산업발전 전략과 디지털 전자산업 발전방향
2주(9/14)	최진석 전무(하이닉스 반도체)	반도체 산업현황과 발전방향
3주(9/21)	윤석열 상무(삼성 SDI)	디스플레이 산업현황과 발전전망
4주(10/5)	곽국연 상무(LG 전자)	디지털 TV 산업흐름과 기술개발
5주(10/12)	이장희 이사(대우일렉트로닉스)	가전산업의 사업환경 변화와 기술개발
6주(10/19)	정문식 대표(이레 전자산업)	중소기업 디지털 기술개발 전략 사례발표
7주(10/26)	임병진 대표(성진 씨엔씨)	한국디지털 보안기기 산업의 강점과 향후 전망
8주(11/2)	최윤길 대표(성주음향)	휴먼어터와 스피커 산업의 발전전략
9주(11/9)	김진용 상무(삼성전기)	전자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10주(11/16)	이경주 상무(삼성전자)	휴대폰 산업의 향후전망
11주(11/23)	유제일 상무(삼성전자)	전자산업의 해외통상 마찰 대응
12주(11/30)	박래성 상무(삼성전자)	전자분야 환경규제 대응
13주(12/7)	박종호 상무(LG 전자)	글로벌기업의 리스크 관리

본회 이감열 부회장, 취임 100일 소감 인터뷰 - 진흥회 변화와 혁신 주도 -



“경제단체는 하나의 커뮤니티(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재미(FUN)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취임 백일을 맞이한 본회 이감열 상근 부회장(55)의 가치관은 ‘enjoy&fun’에서 나온다. 힘·단체는 가만히 있어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하면 얻을 게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 부회장은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FUN’일 정도로 FUN이 중시된다”며 “모든 일은 재미있으면서도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진흥회 역시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점을 느끼게 될 때 회원사의 결속이 강해지게 된다”며 “이 두가지 명제가 해결될 때 조직도 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혁신을 내세우고 있는 이 부회장은 혁신을 하더라도 새로운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즐기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진흥회 사무실 곳곳에 ‘fun enjoy, EIAK’ 라는 표어가 눈에 띄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이다.

“본회는 과거에 어떤 이유에서건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용기와 ‘꿈’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진흥회는 지금 분명히 변화의 한 가운데서 있고 조직의 존재를 위해서는 △새 수익원 발굴 △서비스 발굴 △재원 축적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특별회계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진흥회 발전기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그 준비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효율적인 조직구조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함께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당장 성과보상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IAK 활동

한일산업무역회의 전기·전자·IT분과 위원회 회의



본회(회장 : 윤중용)는 지난 8월 17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아폴로룸에서 본회 이갑열 부회장을 주제로 “한일산업무역회의 전기·전자·IT 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된 주요 내용은 한·일 FTA 체결은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긍정적인 면을 잘 고려하여 부품·소재분야의 기초·소재 개발, 육성 등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일 FTA 파급효과는 제품 가격 하락보다는 비관세장벽(정부조달, 서비스, 유통 등)에서 영향이 클 것 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개별 기업에서 투자가 어려운 분야(세라믹, TFT-LCD용 박막유리 등은 국내생산 불가)에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2004년 하반기 전자부품 구매계획

본회(회장 : 윤중용)가 주요 세트업계의 하반기 전자부품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내수와 수출 공히 전자부품산업의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이트로닉스, 삼보컴퓨터 등 주요 5개사의 하반기 전자부품 구매계획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8% 증가한 19조 4,096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약 2조6천5백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국산부품인 내자구매가 전체 구매액의 53.6%인 10조 4,096억원이었으며, 외자구매는 46.4%인 9조 85억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휴대폰이 9조 5,705억원으로 전체 품목 가운데 약 49.3%의 비중으로 전체 구매계획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테네 올림픽 특수와 디지털 방송의 영향으로 TV가 2조 4,85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노트북을 포함한 PC가 1조 9,211억원 등으로 디지털 가전 및 정보통신기기용 제품의 부품 구매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로 보면 PDP의 보급속도 증가로 소모 부품구매가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일반 소비자들의 LCD 모니터 수요 증가로 모니터가 45.0%의 부품 구매증가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액상으로도 가장 크게 구매가 증가하는 휴대폰은 증가율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37.1%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카메라폰 및 MP3폰 등 고급 기종 휴대폰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에어컨 또한 세계적인 무더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35.5%의 부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린터 또한 31.6%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반대로 캠코더(-40.9%), 노트북 PC(-24.4%), 일반TV(-15.1%), 전자레인지(-15.1%), 광기록 재생장치(-14.7%) 등은 수요감소 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으로 주요 세트업계의 올 하반기 부품 구매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국내 전자부품 관련업체는 물론 정부 연구기관 등에도 제공되어 세트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정책 자료로도 활용됨으로써,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만 휴대폰업체 우리 고부가가치 휴대폰부품업체에 러브콜

본회(회장 : 윤중용)가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8월 27일 대만에서 우리 고부가가치 휴대폰부품 업체들과 대

만의 휴대폰 제조업체 및 벤더업체와의 무역상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참여한 대만의 휴대폰생산업체는 대만 부동의 1위 기업인 벤큐를 비롯하여 Arima, ArimaComm, ASUS, BenQ, Compal, DBTEL 등 상위 7개사 정도에다, East Wind, E-CMOS, HeavenStar, Polytronics, SFI 등 휴대폰 부품 전문벤더 업체들이다.

금번 무역상담회를 위한 조사에서 나타난 대만 휴대폰 업체들의 관심부품은 OLED, LCD모듈, LED, 마이크로스피커, Hinge, 안테나, 카메라모듈, 배터리팩, Backend IC, 멀티미디어 등 기능 및 디자인 관련 부품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경쟁 위주의 부품은 중국산이나 대만산에 비하여 별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첨단 다기능, 고급제품 등에 관련된 한국산 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상담회를 갖게 된 우리업체는 오리온전기 등 11개사로 1개사당 평균 7~8개의 대만업체와 상담스케줄이 잡혀있어, 총 100여건의 상담이 펼쳐졌다.

무역상담회는 대만의 주요 통신 및 네트워크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타이베이텔레콤 기간(8월 26일~28일)에 개최되며 장소도 전시장인 대만월드트레이드센터(Taiwan World Trade Center)에서 개최되어 사전에 상담이 예정된 업체 이외에도 많은 대만의 업체들이 참여했다.

본회는 상담장내에 참가업체의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간이전시 부스를 설치하여 타이베이텔레콤 참가업체 및 참관객이 상담회장을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제품을 직접 볼 수 있는 전시회도 병행하였다.

한편, 대만의 휴대폰산업은 지난해 생산량이 4,400만대에 이르고 올해는 6,300만대로 전년대비 43%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등 중국, 한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생산국으로 발전하고 있어 우리 부품 업체들에게는 또 하나의 주력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도 하반기 주요 전자제품 생산, 판매계획

본회(회장 : 윤중용)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세트업체 5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생산판매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요 대기업들의 금년 하반기 생산(26.7%), 수출

(31.0%), 국내시판(14.6%)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이트로닉스, 삼보컴퓨터 등 주요 5개사의 금년 하반기 전자제품 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7% 증가한 19조 9,29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4조2,02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0% 증가한 15조 1,981억원으로 3조 6,00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판의 경우는 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한 4조 7,314억원으로 수출 및 시판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품목별로는 휴대폰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2% 증가한 10조 537억원을 생산(전체 전자기기 중 약 50.4% 비중)될 전망이며, 칼라 TV는 디지털 제품(1조1,757억원)과 일반TV(5,332억원)을 합쳐 1조 7,089억원이 하반기에 생산될 계획이다.

이밖에, PC는 2조 5,820억원을 하반기에 생산할 계획으로 이 중 노트북 PC가 1조 555억원으로 데스크탑 PC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니터는 7,588억원으로 이중 TFT-LCD 모니터가 6,920억원 생산되어 91.2%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예전 CRT 모니터 수요의 대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장고는 1조 124억원, 에어컨 7,245억원, 세탁기 6,919억원 등을 각각 하반기에 생산할 계획이다.

금번 조사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이트로닉스, 삼보컴퓨터 등 주요 5개사의 2004년도 하반기 및 연간 전자제품 생산판매 계획과 전자부품 구매계획을 조사함으로써, 하반기 및 연간 전자산업경기를 전망코자 실시되었으며, 전체 전자산업(부품제외)에서 이들 5개사의 비중(2003년 기준)은 약 55%이다.

본회, 대만 무역상담회 개최

본회(회장 : 윤중용)는 해외 경쟁력을 갖춘 중소 부품업체의 수출 지원에 나섰다.

27일 대만 월드트레이드센터(TWTC)에서 오리온전기 등 국내 11개 휴대폰부품 업체들과 대만 휴대폰 제조 및 부품수요업체들과의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상담회는 대만 휴대폰 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유



기발광다이오드(OLED)·LCD모듈·LED·마이크로스피커 등 고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를 중심으로 시장개척단을 구성해 대만 현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매상담, 제휴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오리온전기·네스디스플레이·부전전자부품·성남전자공업·엔하이테크·우주일렉트로닉스·유비휴먼·이엠따블유안테나·포스텍전자·필코전자·한울정보통신 등 총 11개사가 참가했고 대만에서는 벤큐, 아리마, ASUS, 콤펠 등 휴대폰 생산 상위 7개 업체와 휴대폰 부품 전문업체인 이스트윈드, 헤븐스타, 폴리트로닉스 등이 대거 참여했다.

본회 부품소재산업팀 임호기 팀장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적 시장개척’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며 “이번 휴대폰 부품을 시작으로 DTV·PDP 등 디스플레이스, 셋톱박스, MP3 관련부품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전자부품DB연계사업 中참여 가시화

대표적인 한국과 일본간 기업간(B2B) 전장상거래 프로젝트인 ‘한·일 전자부품 데이터베이스(DB) 연계 사업’에 중국의 참여가 가시화되면서 이르면 내년 초에 한·중·일 3국의 전자부품 정보를 포괄하는 글로벌 전자부품 e마켓플레이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22일 본회(회장 윤중용)는 늦어도 올연말까지는 일본 전자정보산업협회(JEITA)와 공동으로 오픈한 ‘한·일 전자부품 통합 검색 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중국측 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본회는 중국 참여업체가 확정되면 JEITA와 협의를 거

쳐 중국 전자부품업체들의 생산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포함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한·일 전자부품 e마켓플레이스에 통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회는 이달 초 중국 상무부와 신식사업부로부터 각각 ‘한국기계전자수출입상회’와 ‘중국정부산업개발센터(CCID)데이터소스’ 등 산하의 전자부품 관련 기관을 후보로 추천받아 기술력과 정부지원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후보 업체 중 중국 상무부 산하단체인 ‘중국기계전자수출입상회’는 기계·전자·IT 산업 관련 6400개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하에 27분회와 4개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 CCID데이터소스는 신식산업부 산하 CCID의 자회사로 전자기와 부품 등을 포함한 IT관련 종합 DB 구축 운영업체다.

본회 김성복 부장은 “중국기계전자수출입상회는 업체와 정부가 협력 업무에 강점이 있는 반면 CCID데이터소스는 DB전문업체로 글로벌 DB 구축사업에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가의 전자부품 업종을 아우르는 사업인 만큼 추진 의지와 정부 지원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최종 협력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대·중소기업간 장비·재료분야 협력약 조인식



본회(회장 : 윤중용)는 지난 9월 2일 서울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의 주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대·중소기업간 장비·재료분야 수급기업간 협력 조인식을 개최했다. ●

회원사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주)프로칩스

대표자 : **최 상 수**

서울 구로 오류 2동 118-2

전화 : 02-2615-8986 팩스 : 02-2615-8985

<http://www.prochips.com>

위성방송수신기, MP3, SMT



시스템베이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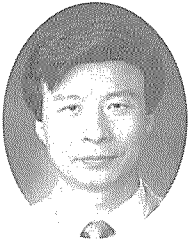
대표자 : **김 명 현**

서울 서초 방배 2동 475-22 청진빌딩

전화 : 02-583-9748 팩스 : 02-583-9747

<http://www.sysbas.com>

Multiport, Portbase, Dialgate



(주)태영광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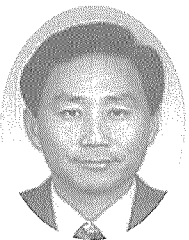
대표자 : **엄 두 일**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6-92

전화 : 032-865-0451 팩스 : 032-865-0450

<http://www.tyoptics.com>

필터, 렌즈 등



(주)코스텍시스

대표자 : **한 규 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07-2 남동공단 136B 3L

전화 : 032-821-0162 팩스 : 032-822-4923

<http://www.kostec.net>

반도체 부품



(주)한빛전자

대표자 : **이 도 균**

경기 수원 영통구 원천동 414-5

전화 : 031-218-1900 팩스 : 031-212-6251

<http://www.hbe.co.kr>

메모리모듈 외



(주)디디엠티

대표자 : **김원규**

경기 화성군 동탄면 청계리 69-13

전화 : 031-378-8587 팩스 : 031-378-8590

<http://www.ddmt.co.kr>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평판디스플레이모듈 부품



(주)베스코

대표자 : **이희진**

인천 서구 석남동 223-271 정우아파트형 공장 506호

전화 : 032-581-8333 팩스 : 032-578-8333

<http://www.vessco.net>

적외선센서, 열선센서, 무선감지기류



(주)이시티

대표자 : **정태섭**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8-29 준성빌딩 1, 3, 4층

전화 : 02-569-1960 팩스 : 02-569-2388

<http://www.ect.co.kr>

오디오코덱칩(MP3/MPEG4), 2D 바코드 모듈



(주)유텔

대표자 : **김호동**

경기도 의왕시 포일시 511 원텍벤처빌딩 4층

전화 : 031-544-6017 팩스 : 031-552-8349

<http://www.u-tel.co.kr>

Microwavw Module, 송수신기 Module



(주)아이엠디텍

대표자 : **김종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56-5

전화 : 02-838-7101 팩스 : 02-838-7140

<http://www.imdtech.co.kr>

Window lens, EMI spray 임가공